영암군, 1억 농부 500명·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안 발표
스마트팜 100배로 대폭 확대

영암군이 1억농부 500명과 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 스마트팜 100배 확대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농정 혁신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 하락, 1차산업 중심 농업, 청년농 부족 및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공청회 첫 발표는 한병한 (유)한터 대표가 맡았다. 그는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영암군의 강점과 단점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중심 식량작물 생산 및 전략 작물 산업화 구축,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융복합 농식품 산업 육성, K-웰니스 도시활성화 힐링 농업농촌 구현 등이었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우 군수는 "272명의 1억 농부를 2026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309명에서 2030년까지 1000명으로 육성하겠다"며 "정년농육성 전초기지인 스마트팜을 현재보다 100배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약재배와 공선출하를 실시하고, 유통·가공·판매에 2배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2030년까지 농정 분야 탄소배출 40%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친환경 비료지원, 메탄 저감 사료 공급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미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사, 안병한 (유)한터 대표, 이맹종 영암축협장,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영암군이 1억 농부 500명과 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 스마트팜 100배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영암군 제공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청중 즉석 질문 두 가지 방식으로 열려 영암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장구역할을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잘 사는 영암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영암군민, 영암군, 영암군의회가 함께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유출하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농정대전환이다.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T/F팀 구성, 협치농정위원회, 품목별 협의회를 거쳐 오는 8월 협치농정 군민회의에서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국보 고려청자 강진에 온다 6월11일부터 특별전

강진군은 오는 6월11일부터 9월8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국보 순회전:모두의 곁으로' 특별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자기에 핀 꽃, 상감청자'라는 주제로 국보를 비롯한 명품 청자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청자상감모란무늬항아리, 청자상감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등 평소 교과서나 전공서적 등에서만 보던 명품 청자들을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강진군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앞서 강진군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 출범식에 참석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순회 전시 참여 지자체 상호 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의 본거지인 강진군에서 국보 청자를 전시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그동안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전시로 강진군민들의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접수 발생이자 군 보전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형태로 수매대금을 선지급하게 되며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 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6월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신안소방서 직원 101명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29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101명 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운동의 목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신안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은 "고향사랑기부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직원들의 마음으로 모인 기부금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신안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들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소속 청소년 대상 주말 체험활동 무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무안군이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지난 20일 소속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자신감UP! 성취감UP! 스포츠왕!'이라는 주제로 주말체험활동(롤러스케이트장 활동)을 진행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청소년(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상담·체험활동·급식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기영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및 스포츠를 배우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최근 무안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말체험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코로나19 경계→관심 하향 영암군, 대응 체계 조정

영암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5월1일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를 조정한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된 후 24시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 중 진단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급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종전대로 무상 지원한다.

영암군보건소는 관심 단계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영암군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완도군,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연다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완도 해변 공원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도 완도군에서 연속 개최하게 됐다.

군은 반복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완도만의 특색 있는 해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참신한 주제와 스토리를 발굴하여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는 총 33개소의 정원을 조성했다. '대표 정원'은 '치유의 섬 완도'의 이미지에 맞게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치유하는 콘셉트의 '트리 티 하우스(Tree Tea House)'로 꾸며졌다.

'작가 정원'에는 초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참여 정원'에는 '타이니 하우스 가든', 즉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 30개소의 정원이 옹기종기 모여 정원 마을을 이뤘다.

입구에는 '완도 캐슬', 커다란 토피어리로 꾸며지는 '빌리지 센터', 바다와 정원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웨딩 로드' 등이 조성돼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이 가족의 달인 5월에 개최되는 만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미니 정원·가든 모자·플라워 액자 만들기와 식물 관리부터 병해충까지 처방해 주는 '정원 119', 정원과 어울리는 시화 작품 전시, 캘리그래피 전시·체험 등이 있다.

5월3일 오후 7시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공동으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가, 5월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위한 '뽀로로 매직 싱어롱 쇼'가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완도에서 정원 페스티벌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신안군, 멸종위기종 동·식물 만남 기획전시

신안군은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안자생멸종위기종 동·식물' 기획전시를 오는 7월26일까지 자은면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신안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소개하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함께 진행 중인 멸종위기종 복원 노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에는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참달팽이 등 가거도, 홍도, 하태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설명패널, 국립생태원 기증 식물 전시, 멸종위기종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방문객에게 멸종위기종을 이해하고 신안 자생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와 신안의 생물다양성을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